

현안과 과제

■ 세계 인구구조 분석

-UN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목 차

■ 세계 인구구조 분석

-UN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세계 인구구조 분석	2
3. 시사점	13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경제센터 : 강성현 선임연구원 (02-2072-6221, shkang@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세계 인구구조 분석 - UN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 개 요

UN 경제사회국(DESA)은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금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세계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세계 인구구조 분석

① 총 인구

(현황) 2023년 현재 전 세계 237개 국가의 총 인구는 약 80.9억 명으로 추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인구가 전체의 59.0%를, 상위 10개 국가가 총 인구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전망)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7.0%를 차지하는 60개 국가는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20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인구는 2023년 14.2억 명에서 2100년 6.3억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프리카와 중앙·남부·서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 전 세계 인구 감소세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세기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데, 2100년에는 2023년 대비 약 158%의 인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② 중위연령 및 기대여명

세계 중위연령은 2023년 30.4세에서 2100년 42.1세까지 높아지고, 평균 기대여명도 동기간 73.2세에서 81.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연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19.0세 → 2100년 35.1세).

③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2100년까지 0-14세 인구는 감소하고(2023년 20.2억 명 → 2100년 16.8억 명), 6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8.1억 명 → 2100년 24.4억 명).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다(2023년 52.6억 명 → 2070년 62.9억 명 → 2100년 60.6억 명). 2023년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은 65.0%로 2033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되어 2100년 59.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지속) 21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현재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25명으로 하락 중이다. 2051년에 2.09명까지 줄어들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을 하회할 전망이다. 2100년에는 1.8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인구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2년(65.4%), 인구 수는 2070년(62.8억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2023년 현재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52.6억 명)의 61.1%가 아시아에 거주 중인데, 2100년(60.6억 명)에 이르러 그 비중이 43.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꾸준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6.0%에서 2100년 4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심화) 전 세계 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에 고령사회, 207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00년까지 전체 고령 인구 중 80대 이상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19.8% → 2100년 38.9%)

(인구 부양비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총 부양비는 53.9%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203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되며 2100년에는 67.9%까지 늘어날 것이다. 특히, 고령 부양비의 증가폭이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2100년 고령 부양비 15.4% → 40.2%, 유소년 부양비 38.5% → 27.7%). 고령 부양비는 중남미와 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④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세계 인구 감소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주요국들의 인구 성장 둔화 및 감소는 전 세계 인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2.1명대의 붕괴와 고령 인구 비중의 확대는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시사점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인구구조가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장기 정책의 조화, 정책의 연속성 제고, 현재-미래 세대 간 형평성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하여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젊은 세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이 요구된다.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고용 안정성 강화, 가족친화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빠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지역에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발굴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1. 개요

○ UN 경제사회국(DESA)은 '2024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발간. 금 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

- 오늘날 많은 국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더불어 사회적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최근 UN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하 DESA)은 '2024년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를 발간
 - '2024년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는 세계 인구와 관련해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동향과 2024년부터 2100년까지의 전망을 담고 있음
 - 보고서는 2022년 8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영향으로 2080년대에 접어들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 전망하였음
 -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주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며, 현재의 고령화된 인구 모멘텀¹⁾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다고 분석
 - 한편, 국제 이주는 인구 감소의 일시적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

○ 본 보고서는 UN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세계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은 주로 1950년~2023년 추계치와 2024년~2100년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 (medium scenario)를 활용하며, 국가 및 지역 분류는 보고서의 분류 기준을 따름²⁾
 - 인구 통계는 연앙인구(당해년 7월 1일) 통계를 활용

1) '인구 모멘텀'은 과거의 인구 성장과 출산율 변동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2)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Online Edition.

2. 세계 인구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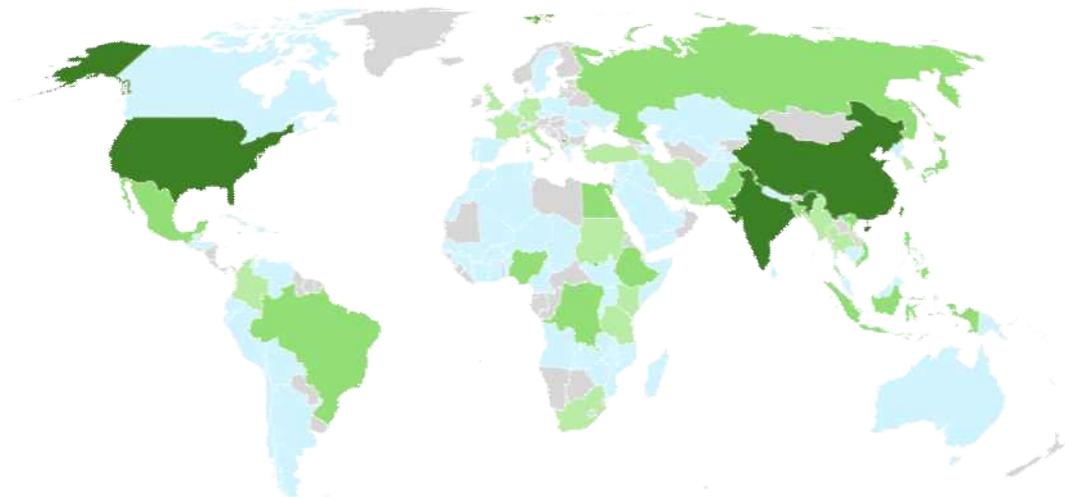
① 총 인구

○ (현황) 2023년 현재 전 세계 237개 국가의 총 인구는 80.9억 명으로 추계

- 전 세계 인구는 2010년 70억 명을 돌파하고, 2022년 80억 명 시대에 접어들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47.8억 명으로 전체의 59.0%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가 뒤를 이음
 - 아프리카 14.8억 명(18.3%), 유럽 7.5억 명(9.2%), 중남미 6.6억 명(8.1%), 북미 3.8억 명(4.7%), 오세아니아 0.5억 명(0.6%)
- 전세계 237개 국가 중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인구의 57.1%를 차지
 - 상위 10개 국가는 인도 14.4억 명, 중국 14.2억 명, 미국 3.4억 명, 인도네시아 2.8억 명, 파키스탄 2.5억 명, 나이지리아 2.3억 명, 브라질 2.1억 명, 방글라데시 1.7억 명, 러시아 1.5억 명, 멕시코 1.3억 명으로 구성

< 세계 인구 현황 >

■ 3억 이상 ■ 1억 - 3억 ■ 5천만 - 1억 ■ 1천만 - 5천만 ■ 1천만 이하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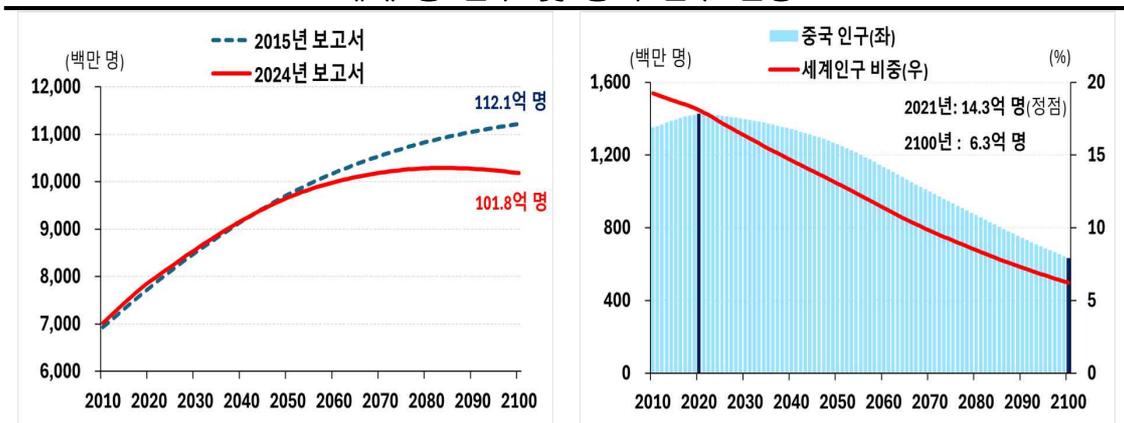
○ (인구 감소)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 27.0%를 차지하는 60개 국가는 인구 정점을 지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음

- 2000년대까지 동부·중부 유럽 국가, 2010년대 이후 동아시아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
 - (2010년대 이전) 러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헝가리, 벨라루스 등
 - (2010년~2023년) 중국, 태국,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폴란드, 쿠바, 체코,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 (전망) 20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 전 세계 인구는 2084년 102.9억 명을 기록한 뒤 2100년까지 101.8억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인구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세계 총 인구 감소가 21세기 내에 진행될 확률은 10년 전(2015년 전망 보고서) 30% 내외로 전망됐으나, 2024년 전망에서는 80%로 급등
 - 2024~54년 동안 51개국, 2055~99년까지 51개 국가의 인구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2023년 세계 인구의 17.6%를 차지하는 중국 인구(14.2억 명)가 2100년 6.3억 명까지 급감하면서 세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중국 외에 브라질(2023년 2.1억 명 → 2100년 1.6억 명)과 러시아(2023년 1.6억 명 → 2100년 1.3억 명)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총 인구 및 중국 인구 전망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주1) 2024년 전망 자료 중 2010~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
 주2) 2015년 전망 자료 중 2010~2015년은 추계치, 2016~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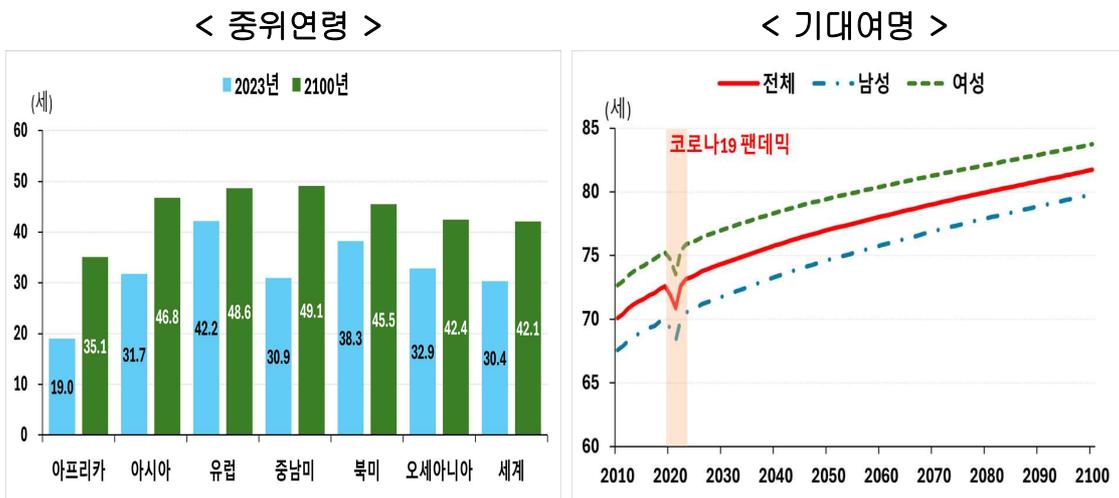
○ (전망) 아프리카와 중앙·남부·서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 세계 인구 감소세를 늦출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 : 금세기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 2023년 세계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불과하나 2100년 37.5%까지 높아질 전망
 - 2023년 14.8억 명 → 2053년 25.8억 명 → 2100년 38.1억 명
 - 2100년까지 약 158% 인구 증가세 시현(중앙아프리카 ▲283.5%, 동아프리카 ▲183.4%, 서아프리카 ▲139.8% 등)
- 아시아 :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뤄지지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9.0%에서 2100년 45.3%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47.8억 명 → 2053년 52.9억 명 → 2100년 46.13억 명
 - 2100년까지 동아시아 인구는 16.6억 명에서 7.7억 명까지 감소(△53.6%)
 - 반면 중앙아시아는 8천만 명에서 1.5억 명(▲85.5%), 서아시아는 3.0억 명에서 5.2억 명(▲72.6%)으로, 남아시아는 2.0억 명에서 2.5억 명으로 증가(▲21.8%)
 - ※ 2023년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의 경우, 2023년 14.4억 명에서 2061년 17.0억 명 까지 증가하다 2100년 15.1억 명으로 감소할 전망
- 유럽 :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2%에서 2100년 5.8%까지 감소할 전망
 - 2023년 7.5억 명 → 2053년 7.0억 명 → 2100년 5.9억 명
 - 2023~2100년 간 동유럽(2.9억 명→2.0억 명)과 남유럽(1.5억 명→9,600만 명) 인구는 30% 이상 감소
- 북미 :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중반대로 높지 않으나, 꾸준한 인구 증가세(2023~2100년 간 24.0%)를 시현할 전망
 - 2023년 3.8억 명 → 2053년 4.3억 명 → 2100년 4.7억 명
- 중남미 : 전반적으로 2050년대까지 인구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2080년대 후반에 이르러 2023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할 전망
 - 2023년 6.6억 명 → 2053년 7.3억 명 → 2100년 6.1억 명

② 중위연령 및 기대여명

○ 세계 중위연령은 2023년 30.4세에서 2100년 42.1세까지 높아지고, 동기간 평균 기대여명도 73.2세에서 81.7세까지 8세 가량 늘어날 전망

- (중위연령) 2022년 30세를 돌파했으며, 이후 완만히 상승하여 2100년 42.1세까지 높아질 전망
 - 2023년 지역별 중위연령은 유럽 42.2세, 북미 38.3세, 오세아니아 32.9세, 중남미 30.9세, 아시아 31.7세, 아프리카 19.0세 순으로 높음
 - 2100년에 이르러서는 중남미 49.1세, 유럽 48.6세, 아시아 46.8세, 북미 45.5세, 오세아니아 42.4세, 아프리카 35.1세로, 중남미(▲18.2세)와 아프리카(▲16.0세), 아시아(▲15.0세)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기대여명) 2023년과 2100년 평균 기대여명은 각각 73.2세, 81.7세이며, 동기간 남성은 70.5세에서 79.8세, 여성은 75.9세에서 83.7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평균 기대여명은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상승(2019년 72.6세 → 2020년 71.9세 → 2021년 70.9세 → 2022년 72.6세)
 - 기대여명이 80세를 넘는 시점은 평균 2080년, 여성 2055년, 남성 2100년 이후임
 - 한편, 남녀 간 기대여명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2023년 5.3세 → 2100년 3.9세)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주: 2010~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③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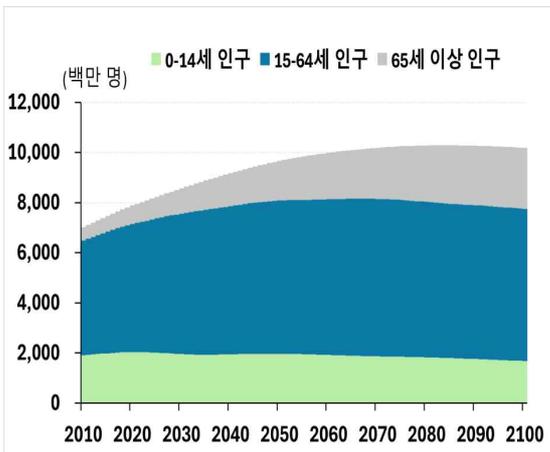
○ (연령계층별 인구 수) 15세 미만 인구의 감소와 그에 대비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15-64세 인구의 증가율 정체가 보다 확연해질 전망

- 2023년~2100년 간 0-14세 인구는 20.2억 명에서 16.8억 명까지 감소,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8.1억 명에서 24.4억 명까지 증가
- 15-64세 인구는 2023년 52.6억 명에서 2070년 62.9억 명까지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되어 2100년 60.6억 명까지 줄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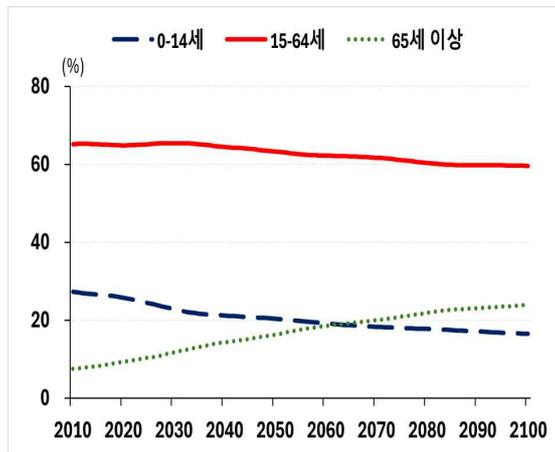
○ (연령계층별 인구 비중) 0-14세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0년대에 역전되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2년부터 감소세 전환

- 0-14세 인구 비중은 2023년 25.0%에서 2100년 16.5%까지 감소하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동기간 10.0%에서 23.9%까지 증가
-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2063년 65세 인구 비중이 19.0%로 증가해 0-14세 인구 비중(18.9%)을 추월
- 15-64세 인구 비중은 2023년 65.0%에서 2100년 59.6%까지 감소할 전망
- 15-64세 인구 비중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연령계층별 인구 수 >



< 연령계층별 인구 비중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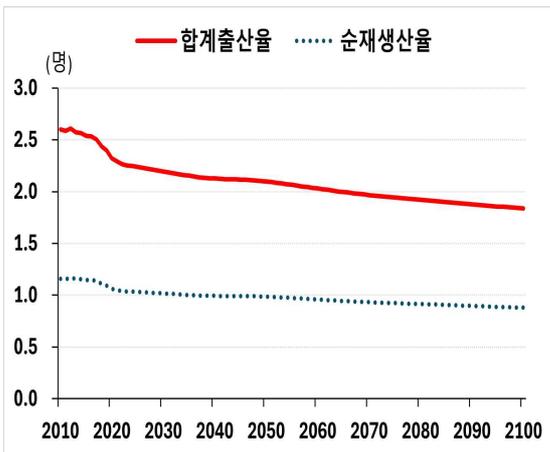
주: 2010~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③-1 저출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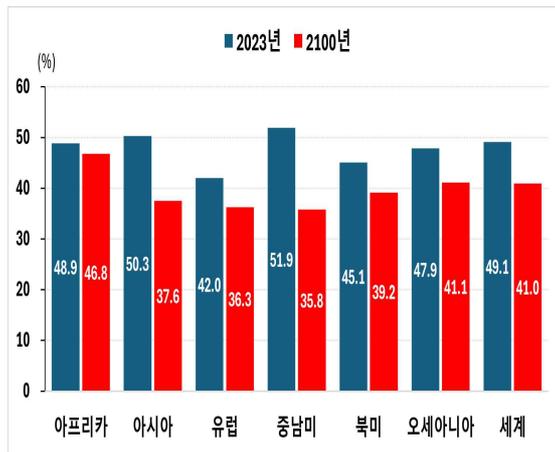
○ 2100년까지 전 세계적인 저출산 경향이 지속될 전망

- 2023년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25명, 순재생산율은 1.04명으로 하락 중이며, 2100년 합계출산율은 1.84명, 순재생산율은 0.88명을 기록할 전망
 - 합계출산율 2.1명이나 순재생산율 1.0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음
 - 순재생산율은 2039년 0.99명, 합계출산율은 2051년 2.09명으로 전망되어 금세기 중반에 이르면 출산에 의한 인구 유지나 증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2023년 현재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2.1명 미만이며, 2100년에는 모든 지역이 2.1명을 하회할 전망
 - 2023년 추계치와 2100년 전망치를 비교하면 아프리카(4.07명→2.02명), 오세아니아(2.14명→1.73명), 아시아(1.88명→1.72명), 중남미(1.81명→1.65명)는 감소하고, 유럽(1.40명→1.58명), 북미(1.60명→1.63명)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체 여성인구 중 가임기 여성(15-49세) 비중은 2023년 49.1%이나 2006년 이후의 하락세가 강해져 2100년 41.0%까지 줄어듦
 - 가임기 여성인구의 비중의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와 함께 출산력 기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특히, 2024년~2100년 간 지역별 가임기 여성인구 비중 감소세는 아시아(50.3%→37.6%)와 중남미(51.9%→35.8%)에서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

< 합계출산율 및 순재생산율 >



< 여성인구 중 가임기(15-49세) 인구 비중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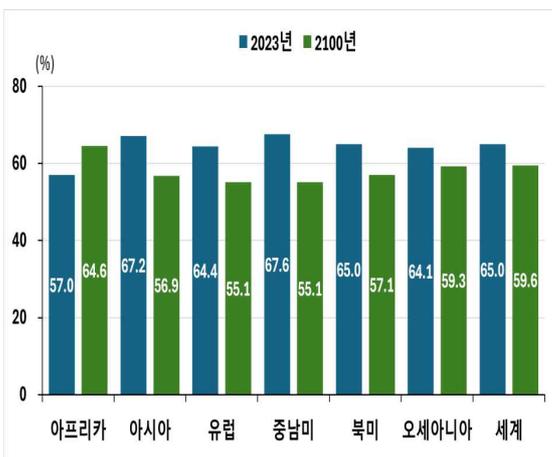
- 주1) 2010~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 주2)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 주3) 순재생산율은 평생 동안 낳은 여아의 수 가운데 출산가능연령에 도달한 생존여아의 수임.

③-2 생산가능인구 감소

○ 전 세계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0년대 초반, 인구 수는 2070년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

- 2023년 전 세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5.0%로 총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나, 점차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영향을 받아 2030년대 중반부터 감소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2년 정점(65.4%)을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84년 50%대로 진입하고, 2100년에 59.6%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는 2024~2100년 간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는데, 중남미(△12.5%)와 아시아(△10.3%)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2023년 현재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수는 총 52.6억 명으로 2070년 62.9억 명까지 증가하다 줄어들기 시작해 2100년 60.6억 명을 기록할 전망
 - 2023년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중 61.1%인 32.1억 명이 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
 - 2040년 중반 아시아 생산가능인구 수의 감소가 본격화되고, 아프리카 생산가능인구의 꾸준한 유입이 이뤄지면서 점차 아프리카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2023년 아시아 61.1%, 아프리카 16.0% → 2100년 아시아 43.2%, 아프리카 40.6%)

< 지역별 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 <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중 지역별 비중 >



(단위 : %)

구분	2023년	2050년	2100년
세계(억 명)	52.6	61.2	60.6
아프리카	16.0	25.5	40.6
아시아	61.1	55.3	43.2
유럽	9.1	6.6	5.4
중남미	8.5	7.7	5.6
북미	4.7	4.3	4.5
오세아니아	0.6	0.6	0.7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주: 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③-3 고령화 심화

○ 전 세계 인구는 이미 2002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에 고령사회, 2070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³⁾

- UN DESA의 2015년 전망 보고서와 비교하면 전 세계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2039년으로 동일하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2015년 전망 보다 8년 앞당겨진 2070년임

- 2023년 현재 세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0%임
- 21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경우 2015년 전망에서는 22.7%, 2024년 전망은 23.9%로 나타나 1.2%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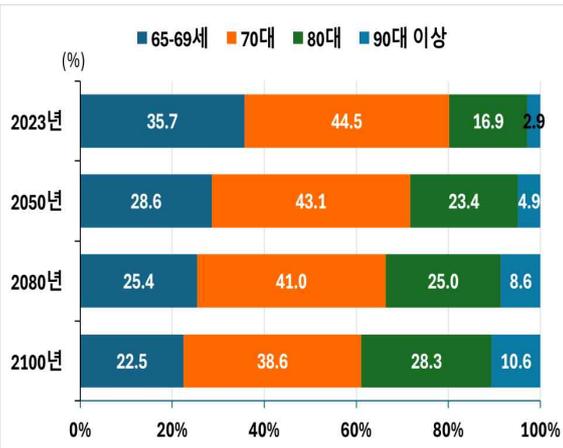
- 2100년까지 고령 인구 중 80대 이상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세계 총 인구 중 80세 이상 비중은 1950년~2023년 간 0.6%에서 2.0%로 느는 데 그쳤으나, 이후 2100년까지 9.3%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65세 이상 인구에서 65-69세 비중은 35.7%, 70-79세 비중은 44.5%, 80-89세 비중은 16.9%, 90세 이상 비중은 2.9%임
- 2100년에 이르러서는 65-69세 비중은 22.5%, 70-79세 38.6%, 80-89세 28.3%, 90세 이상 10.6%로 고령 인구 중 80대 이상 비중이 확연히 높아질 것 전망

< 지역별 고령화 단계 진입 시점 >

구분	고령화	고령	초고령
세계	2002년	2039년	2070년
아프리카	2059년	2096년	2100년~
아시아	2012년	2035년	2054년
유럽	1950년 이전	1996년	2023년
중남미	2012년	2037년	2053년
북미	1950년 이전	2014년	2029년
오세아니아	1950년 이전	2026년	2058년

<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주1) 2010~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주2) 65세 이상 인구비중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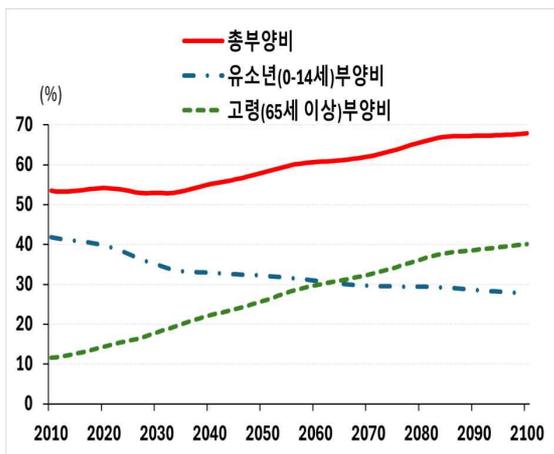
3)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

③-4 인구 부양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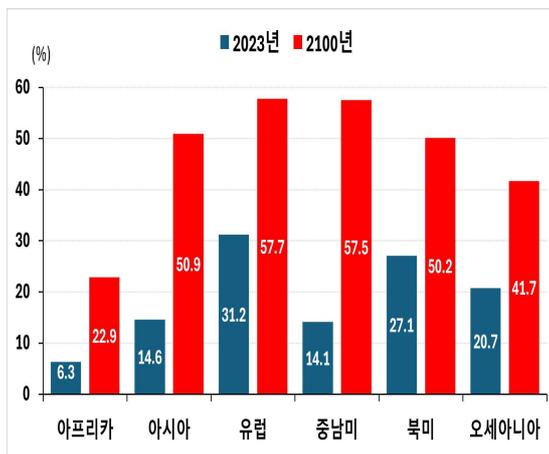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15-64세 인구의 부양비가 증가할 전망

- 2023년 총 부양비는 53.9%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203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되며 2100년에 67.9%까지 늘어날 전망
 - 인구 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를 나타냄
 - 전 세계 인구 부양비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 부양비의 증가폭이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총 부양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임
 - 2023~2100년 간 총 부양비는 53.9%에서 67.9%, 고령 부양비는 15.4%에서 40.2%로 증가하는 한편, 유소년 부양비는 38.5%에서 27.7%로 감소할 전망
- 2023~2100년 간 모든 지역에서 고령 부양비가 증가하는데, 그 중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2023년 지역별 고령 부양비는 유럽(31.2%), 북미(27.1%), 오세아니아(20.7%), 아시아(14.6%), 중남미(14.1%), 아프리카(6.3%) 순으로 높음
 - 2100년에 이르러 유럽(57.7%), 중남미(57.5%), 아시아(50.9%), 북미(50.2%), 오세아니아(41.7%), 아프리카(22.9%) 순으로 변화
 - 중남미(▲43.4%p)와 아시아(▲36.3%p)의 변화폭이 크고, 아프리카 고령 부양비도 20%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특징

< 전 세계 인구부양비 >



< 지역별 고령(65세 이상)부양비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주1) 2010~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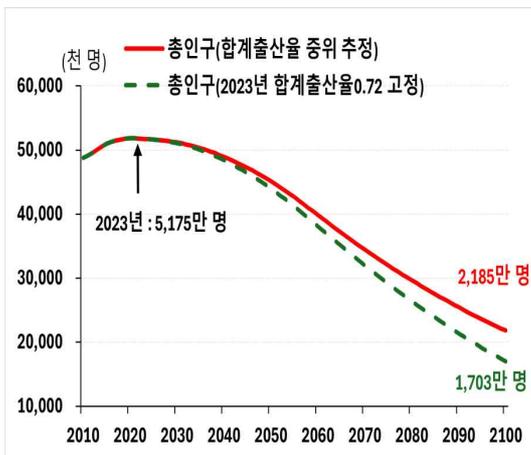
주2) 총부양비 = (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유소년부양비 =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고령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참고1] 한국의 인구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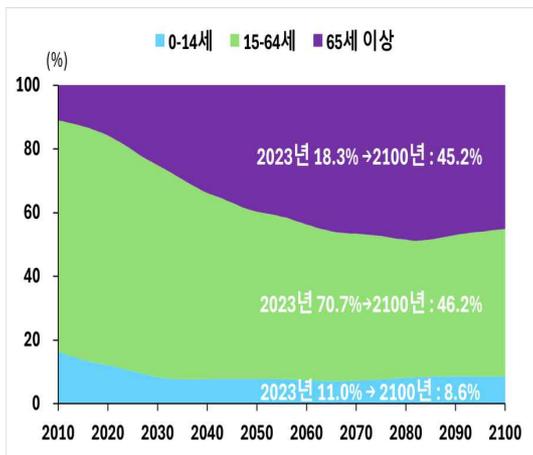
○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출산율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2023년 5,175만 명 수준인 인구가 2100년 2,185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

- UN DESA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정점(5,186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 중이며, 2023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1.1%씩 감소해 2,1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 전망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100년 1.30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로 하고 있음
 - 다만, 2024년부터 2100년까지 2023년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1,703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전망
- 연령별 인구 비중의 경우, 2023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층이 70.7%를 차지하고 있으나 2100년이 되면 46.2%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45.2%와 비슷해질 전망
 - 2023년 전체 인구의 70.7%를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는 3,658만 명으로 2018년부터 감소 중이며 2100년 1,009만명(인구 비중 46.2%)까지 감소할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949만 명(인구 비중 18.3%)으로 2049년 1,793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2100년 98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함. 다만 인구 비중은 45.2%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 인구 전망 >



< 한국 연령별 인구비중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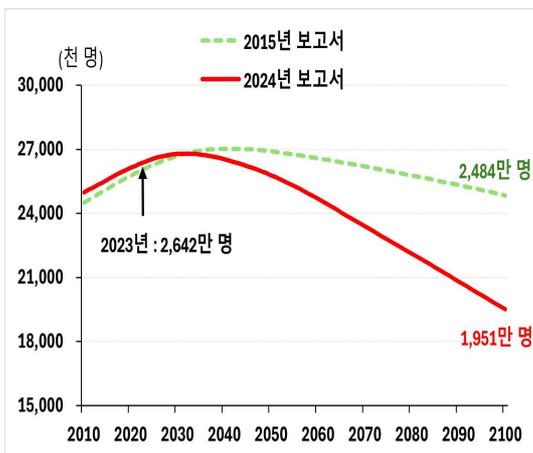
주: 2023년까지는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참고2] 북한의 인구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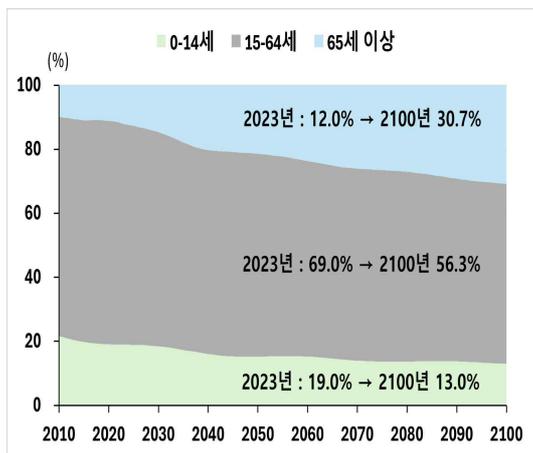
○ 10년 전 전망보다 인구 감소가 빠르고, 가파르게 전개될 가능성 존재

- UN DESA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023년 현재 2,642만 명으로 2032년 정점 (2,680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전환되어 2100년 1,951만 명에 이를 전망
 - 2015년 전망에서 북한 인구는 204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24년 전망에서는 그보다 9년 이른 2033년부터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전망
 - ※ 2015년 전망 : 2023년 2,609만 명 → 2041년(정점) 2,703만 명 → 2100년 2,484만 명
 - 2024년 전망 : 2023년 2,642만 명 → 2032년(정점) 2,680만 명 → 2100년 1,951만 명.
- 연령별 인구 비중의 경우, 2023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층이 69.0%를 차지하고 있으나 2100년이 되면 56.3%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동기간 12.0%에서 30.7%로 높아질 전망
 - 2023년 전체 인구의 69.0%를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는 1,823만 명으로 2022년부터 감소 중이며 2100년 1,090만명(인구 비중 56.3%)까지 줄어든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318만 명(인구 비중 12.0%)으로 2069년 610만 명까지 늘어난 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2100년 599만 명(인구 비중 30.7%)까지 줄어든 전망

< 북한 인구 전망 >



< 북한 연령별 인구비중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주1) 2015년 전망 자료 중 2010~2015년은 추계치, 2016~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

주2) 2024년 전망 자료 중 2010~2023년은 추계치, 2024~2100년은 중간 시나리오 전망치.

④ 종합 평가

○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세계 총 인구의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음

- (인구 성장력 약화) 인도와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인구 성장 둔화 및 감소는 전세계 인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2023년 현재 이미 인구 성장이 멈췄거나 2099년까지 멈출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전체의 67.1%인 159개 국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2023년 전 세계 인구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 두 국가의 인구 성장 둔화와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인도와 중국이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5.4%(인도 17.8%, 중국 17.6%)에서 2100년 21.0%(인도 14.8%, 중국 6.2%)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고령화 심화) 전 세계 합계출산율 2.1명대 붕괴(2051년), 80대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의 확대 등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화가 가속화될 전망

- 합계출산율의 2.1명대 붕괴, 가임기 여성 인구 비중의 감소는 저출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또한, 10년 전 전망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2070년)이 빨라지며,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생산가능인구 감소)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 수준에서 생산가능인구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신규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를 초래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연금,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담 부담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시사점

-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등 국가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 구조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기 때문에 현상 대응적인 단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인구 정책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2025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는 바, 이는 단-장기 정책의 조화, 정책의 연속성 제고, 현재-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고려 등을 반영하여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고령 인구, 특히 8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질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향후 80대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복지서비스 비용 증가, 연금 부담 증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시스템의 강화, 고령자 맞춤형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또한,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해야 하며,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나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AI나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
 - 이와 같은 기술은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헬스케어나 생명공학에 대한 기술 부문에도 투자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넷째, 젊은 세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이 요구됨
 -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은 단기간의 인식 변화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요인(경제적 부담 증대, 성(性) 역할관·가족관 변화, 개인의 자유 중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이에 안정적인 출산 및 보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고용 안정성 강화, 가족친화적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및 확대 등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 다섯째, 향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아프리카와 (중앙·서·남)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발굴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은 장기적인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바,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또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건설 및 인프라 수요가 증가해 건설,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기술 부문에서의 인적 역량 강화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은 이들 지역과 기술, 교육,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여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문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Online Edition.
_____,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DVD Edition.